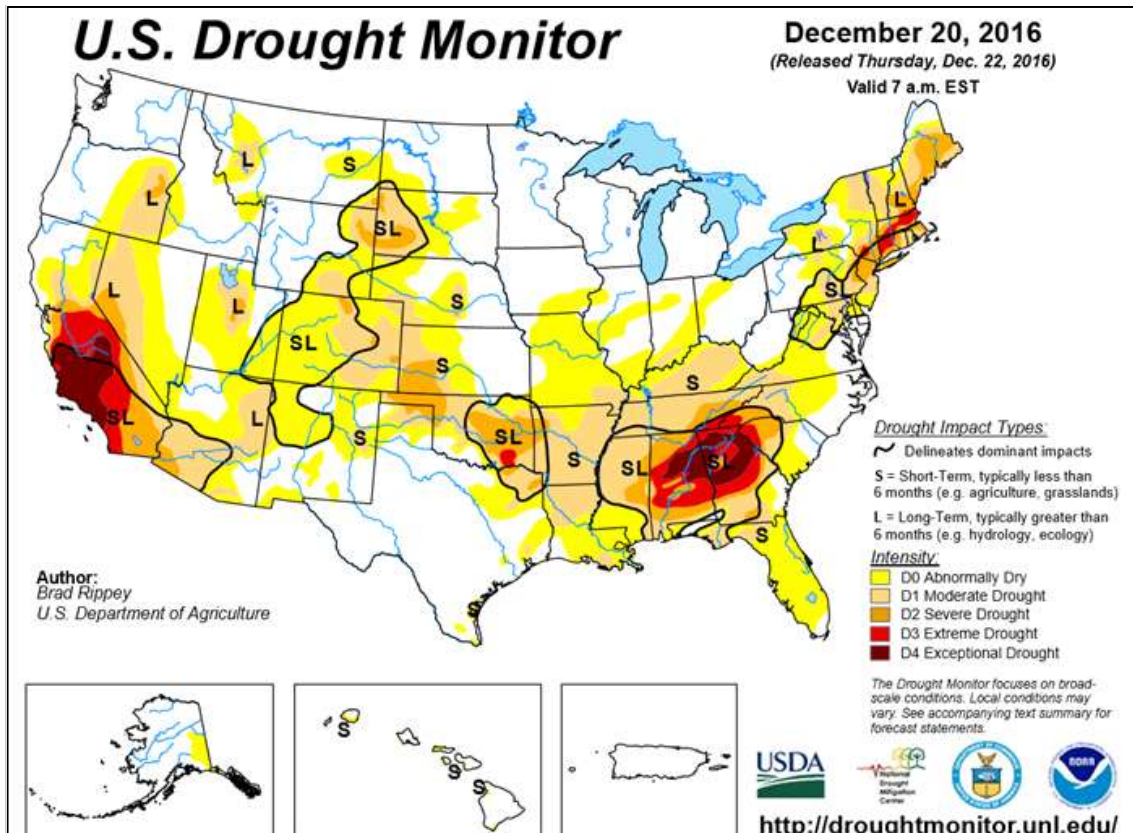


12월 28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3, No. 52)

□ 미국 기후 현황(12/18~12/24)

주 초반에는 텍사스 일부 및 오클라호마 등에서는 기온이 0°F까지 내려가고, 사우스 다코타 동부에서는 기온이 영하 30°F까지 내려가는 등 매우 추운 날씨를 보였다. 주 후반에는 빠르게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동부와 서부 곳곳에서 비가 내렸다. 캘리포니아와 남서부 일대에서는 주 후반에 제법 많은 양의 비가 내렸고, 북중부 일대에서는 많은 눈이 내리기도 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눈이 내린 덕분에 가뭄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 남동부에서 기승을 부리던 가뭄은 조금씩 누그러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알라바마 북부와 중부, 조지아 북부 등에서는 여전히 가뭄이 이어지고 있다. 플로리다 일대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으면서 일시적으로 가뭄이 발생했다. 전국적으로 주 초반에는 평년에 비해 기온이 낮은 날씨를 보였지만 주 후반으로 가면서 평년 수준의 기온을 회복했다. 하지만, 대서양 남부에 위치한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5°F 이상 높은 날씨를 유지하고 있으며, 북서부 내륙 지역에서는 평년에 비해 10~15°F 이상 기온이 낮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 농업 현황 요약(12/19~12/25)

북서부의 오레곤, 아이다호 일부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9°F 정도 낮은 날씨를 보였고, 미시시피강 상류와 남동부 일대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높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평년 수준의 강우량을 기록했지만, 남서부, 콜로라도 서부 및 알칸사스 남부 등에서는 평년에 비해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

□ 세계 기후 현황(12/18~12/24)

■ 유럽: 발칸반도 북부 일대에 자리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중부와 동부 등의 지역에서는 맑은 날씨를 보였다. 독일에서부터 폴란드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기온도 평년 수준을 유지해 겨울밀과 유채 등의 생육상황은 좋은 편이다. 남부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4°C 정도 낮은 날씨를 보이는 등 기온 편차가 심했다. 동부 일대에서는 이례적으로 눈이 내리지 않는 겨울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5~2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영국 남동부에서는 5mm 미만의 비가 내렸다. 영국 북부에서는 15~100mm 내외의 제법 많은 양의 비 또는 눈이 내렸다. 이베리아 반도 일대에서는 맑은 날씨를 보였는데, 스페인 남부와 중부에서는 지난 9월 1일부터 내린 비의 양이 평년에 비해 많았지만 북부에서는 평년에 비해 비가 내리지 않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 구소련(서부):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지만, 눈이 내려 농지를 덮어주고 있기 때문에 겨울밀 등의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크라이나 중부와 러시아 남부 및 중부 일대에서는 5~20cm 내외의 눈이 겨울밀 재배지 일대를 덮고 있는데, 이 눈 덕분에 기온이 영하 18°C에서 28°C까지 내려가는 추운 날씨로 인한 피해를 예방해 주고 있다.

■ 동아시아: 동아시아 지역 주간 기후현황 요약은 2017년 3월부터 재개될 예정임.

■ 호주: 서부와 남동부 일대에서는 대체적으로 맑은 날씨를 보인 가운데, 밀과 보리, 캐놀라 등의 수확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호주 농림부에 따르면, 서호주의 밀 수확률은 80%, 남호주의 밀 수확률은 70%, 빅토리아의 밀 수확률은 45%, 뉴 사우스 웨일즈의 밀 수확률은 85%를 기록하고 있다. 그 밖의 밀 재배지역인 뉴 사우스 웨일즈 북부와 퀸즐랜드 남부에서는 5~25mm 내외의 비가 내렸고(지역에 따라서 40mm 이상), 면화 등의 생육 상황은 좋은 편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비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밀 수확 작업이 종료된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밀 재배지 전역에서는 평년 수준의 기온을 유지하고 있거나 평년에 비해 기온이 1°C 정도 높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 아르헨티나: 중부 일대의 Entre Rio 서부, Buenos Aires 중부와 북부 등에서는 10~5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지역에 따라서 100mm 이상). 이들 지역은 평년 수준의 기온을 보이고 있으며,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낮 최고기온이 30°C 중반까지 오르기도 했다. Buenos Aires 남서부에서는 맑은 날씨를 보였다. 북부 일대의 Cordoba, Chaco 남부 등에서는 25mm 이상의 비가 내렸다. 북부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1~2°C 정도 높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낮 최고기온은 40°C 가까이 오르기도 했다. 아르헨티나 농림부에 따르면 옥수수과



대두의 수확률은 12월 22일 기준 각각 67%, 75%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각각 10%p씩 낮은 수준이다. 밀의 수확률은 73%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 해 같은 기간의 59%에 비해서는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

■ 브라질: 중부와 서부의 Mato Grosso, Goias, Mato Grosso do Sul 남부 및 Sao Paulo, Rio Grande do Sul 등에서는 25~10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낮 최고기온은 30°C 초반까지 오르는 날씨를 보였다. 이번 비는 Rio Grande do Sul 일대의 가뭄을 어느 정도 해소해 주었다. Minas Gerais 북서부, Bahia 서부에서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다. Tocantins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30°C 후반까지 오르는 더운 날씨를 보인 가운데 대두와 면화 등의 생육 상황은 좋은 편이다.